

# 아산시, 푸드플랜 2022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1 기업과 맺은 푸드플랜 업무협약식(오세현 아산시장, 왼쪽 두 번째) 2 생산자 조직화 교육 3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감도

우리 농업 현장은 지속적인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 고령화, 농업생산의 양극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먹거리 공공성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인 푸드플랜을 정부 주요 농업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 지자체는 정부에 보조를 맞춘 지역 단위의 푸드플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상품과 사람과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지속 가능한 농업-사회-환경을 실현하는 정책이자 실천전략이다. 특히 푸드플랜은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로 이어지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해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는 민선7기 주요 정책으로 '아산시 푸드플랜 2022'를 2018년 민관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9년 발표했다. 아산시 푸드플랜 2022는 아산의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으로, '시민 중심 먹거리 자족도시 아산'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아산시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 및 소비자 조직화 교육,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아산시먹거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서 지난 7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자 하는 500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자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향후 2천 농가가 참여하는 중소농 생산자 조직을 구성해 지역 내 공공급식·단체급식·일반소비자까지 지역농산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소비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먹거리 시민교육, 먹거리 공공성 강화, 먹거리 강사단·홍보단 등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800여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하는 교육을 했다.

지역 내 공공·단체급식에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시설인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10월 중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기업체, 대학 등 단체급식에 공급하고, 일반 소비자까지 확장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아산시먹거리재단을 설립해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 기업·대학과 함께하는 아산시 푸드플랜

아산시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소비 확대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 및 대학 등 단체급식 공급처 확대를 위해 기업경제과와 협업해 50여개소의 기업·대학과 지역농산물 공급 협약을 맺었다.

또 관내 어린이집 38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기업체 등 단체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통해 중소농의 판로 확대도 모색 중이다.

기업·대학 등 단체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사업과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꾸러미, 지역 농가 산지 체험 등 지역농업과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정책을 위한 청년농 육성 정책 추진

농촌 고령화 및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는 모든 지자체의 고민거리다. 아산시는 아산시미래농업인센터를 건립해 청년농 유치 및 창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청년 농부의 지역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미래농업인센터는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중심 시설이 될 전망이다. 향후 아산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함께하는 지역농업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 청년농 육성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

## '50만 시대 먹거리 자족도시 아산' 준비

아산시 푸드플랜은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역농산물 생산과 가공 분야는 안전한 농식품의 생산과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로컬푸드 인증기준 준수 등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34만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시는 기업 유치, 산업단지 확대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향후 50만 시대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농업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50만 시대에 걸맞은 공공·단체급식 정책과 생산기반을 푸드플랜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⑦



3